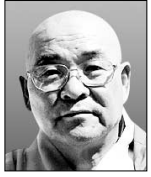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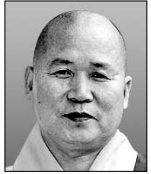
일주문



취운선원 동안거 동참자 모집
영축총림 통도사 취운선원장 청운 스님은 불기 2548년 11월 26일부터 시작되는 동안거 결제에 참가할 남녀 대중을 모집하고 있다. (055)383-6479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 위촉돼
실천불교전국승가회 공동의장 효림 스님이 11월 2일 국무원 산하 '과거사 진상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



도선사 33인 고승대덕 초청 법회
도선사 주지 혜자 스님은 7관세음 33주년 기념, 정규 불교대학 건립을 위한 법회를 11월 22일 봉행한다. (02)993-3161



능인선원 백민불 봉안법회
능인선원 주지 지광 스님은 개원 20주년 기념, 정규 불교대학 건립을 위한 백민불 봉안 대법회를 11월 27일 잠실체육관에서 봉행한다. (02)577-5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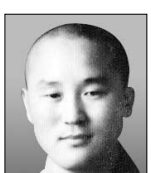
제1회 문화환경교실 개최
송광사 서울포교원 법편사 주지 보경 스님은 11월 21일 월세도래지로 유명한 천수암 일대를 답사하는 '제1회 문화환경교실'을 마련했다. (02)733-53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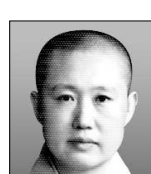
청화 스님 열반 1주기 추모재
전남 곡성 성문사 주지 도일 스님은 11월 21일 오전 11시 성문사 법당에서 '무주담 청화대종사 열반 1주기 추모재'를 봉행한다. (061)363-0081



팔공산 사리사 산사음악회
대구 사리사 주지 성현 스님은 11월 21일 오전 10시 팔공산 이전 기념 100일 기도법회를 봉행 후 제1회 사리사 산사음악회를 개최한다. (053)986-4240



33인 큰스님 초청 대설편회
대구 법왕사 주지 실상 스님은 11월 29일-12월 31일 매일 오전 11시 33인 큰스님 초청 법화경 대설편회를 개최한다. (053)766-3747



대한민국 미술대전 입상
서울 무애원 주지 덕은 스님은 최근 (사)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한 제23회 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한국화 '새벽산길'로 입상했다.



동국대 경주캠프 불문원 총동문회장
前 부산불교신도회장 강선태 씨는 11월 1일 부산 농성호텔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동국대 경주캠프 불교문화대학원 총동문회장으로 선출됐다.

개인 부문 법정 스님 김연호 씨
단체 부문 고려대장경연구소
특별상 윤청광 씨 이재달 씨



제2회 대원상 수상자 선정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이 제정한 대원상 개인부문에 법정 스님(前 김상사 회주)과 김연호(제천 진주동불병원장) 씨가 단체 부문에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립)가 선정됐다. 또 윤청광(불교극작가) 이재달(대광명인불자회 회장) 씨가 특별상에 선정됐다.
제2회 대원상 개인부문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상금 각 1천만원, 단체부문은 상패와 상금 1천500만원, 특별상에는 상패와 상금 각 500만원이 수여된다. 대원상 시상식은 11월 19일 오후 2시 다보빌딩 3층 법당.
승가부문 수상자 법정 스님은 (사)맑고 향기롭게를 창립했으며, <산에는 꽃이 피네> <무소유> 등 20여종의 저서를 발간해 불교의 대사회적 영향력을 확대해왔다.
재가부문에 선정된 김연호 씨는 1973년부터 제천지역에 청년회, 학생회, 어머니회, 승려연합회, 거사림회, 우리는 선우 등을 창립했다.
단체부문에 선정된 대장경연구소는 1995년 <금강경 전산화본>

을 발표한 이후 1996년 고려대장경 전산입력작업을 완료했다. 2000년 12월 <고려대장경 전산화본>을 발표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려대장경을 검색하고 열람할 수 있게 했다.
특별상을 수상한 윤청광 씨는 방송작가와 출판인으로 불교방송 <고승열전> 전 24권을 집필하는 등 불교를 알리는 역할에 헌신한 것이 인정됐다.
이재달 씨는 23세에 망막색소변성증으로 중도 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대광명인불자회를 설립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재활과 복지에 전념한 공로다.
김원우 기자 www.kim@buddhapia.com

'신행과 복지 일관성 있게 실천'

'복지법인 효림원' 설립 무구 스님
"막상 범인인가를 받고나니 어께가 무겁습니다. 불자들의 후원을 사죄로 회향하는 것이 불법을 지키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서울 수호사 내에 효림원을 설립, 지난 10월 말 서울시로부터 복지법인 인가를 받은 수호사 주지 무구 스님(사진). 수호복지대학 운영, 대구 불교복지대학 강의, 지역 독거노인 돌기, 군부대 지원, 남양주 백전사에 개설한 '가정폭력상담소'의 상담 활동까지 스님의 일주일은 '복지' 일정으로 꽉 찼다.



"이것저것 하다보니 좀 더 체계적으로 활동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구 스님의 강의를 듣고 뜻을 이어받은 수호복지대학 케어복지과 졸업생들도 매일 스님과 함께 '독거노인 반찬 나누기', '전통음

식 대접하기' 등의 정기적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스님은 "강좌를 수강하고 나면 학생들의 반 이상이 복지활동에 동참 한다"며 "졸업생들의 행로가 복지활동으로 이어질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법인시설 설립을 시작으로 올 12월에는 수호사를 지상 8층 신축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스님은 20년 넘게 쌓아온 복지원력의 결정체인 사회복지법인 효림원과 신축 건물을 "갈 곳 없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드나들 수 있는 휴식처로 만들겠다"며 "계속해서 복지 사업에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김강진 기자

'온·오프라인에 젊은 공간 만들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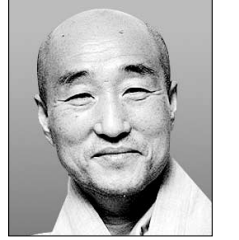
지암불교문화재단 청년문화원 박준탁 국장
"불자들이 마음껏 이용하면서 신심을 더욱 수 있는 온-오프라인 터전을 마련하겠습니다."
지난 11월 7일 강원도 평창 지암정사(주지 성담) 개원 1주년에 맞춰 문을 연 지암불교문화재단 불교청년문화원 박준탁 기획국장(사진)은 불교청년문화원 개설의 '일등공신'이다.
현재 박 씨의 구상은 청년 불자들을 위한 공간 마련과 불자 인드러망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를 위해, 최근 재단이 인수한 지암정사 인근 폐교를 '유스호스텔'과 같은 건물로 조성해 불자들에게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사찰에 컴퓨터를 보급과 홈페이지를 제작, 관리를 통해 사찰과 불자간의 연결이 용이하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해 놓았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장학재단 설립·화합에 진력'

해인승가대 총동문회장 일면 스님
"여러 선배님들에게 누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11월 10일 해인승가대 총동문회장으로 추대된 일면 스님(9기·사진). 해인승가대 가산불교문화원장 지관 스님(1기), 남양주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1기), 법정 스님(서울 길상사·2기), 중앙중회의장 법등 스님(10기) 등도 해인승가대학 출신이다.
"해인승가대 활성화를 위해 올해 장학재단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또 재학생 뿐 아니라 졸업생이나 해외유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일면 스님은 해인승가대 후배인 현 주지현은 스님(16기)과 더불어 해인사 발전을 위해 동문 화합에도 앞장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남동우 기자 dwnam@buddhapia.com



'레디메이드' 보살, 불성 찾는 로봇이야기

제1회 과학기술창작문예대상 박성환 씨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은 '인공지능'에 관한 이야기지만 본질적으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답은 불교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아 사이언스 주최 2004년 제1회 과학기술창작문예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단편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의 작가 박성환(사진) 씨는 11월 10일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자신의 소설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그의 소설 '레디메이드 보살'은 사찰에서 일하던 로봇 '인명'이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을 그렸다. '로봇도 깨달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 와중에 권력층은 로봇의 깨달음을 은폐하려는 한다는 내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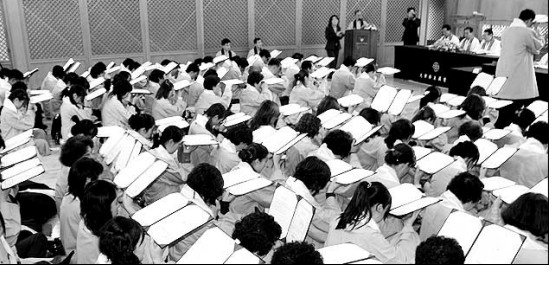
그의 소설 속에서 인간과 로봇은 둘다 '불성'을 가진 존재다. "조주 선사도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고 화두를 던졌듯이, 불교에서는 인간 자체를 다른 존재와 동등한 입장에 놓고 봅니다. '나'라고 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으로 출발하는 불교는 '인간'에 대해 탐구하는 과학계에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줍니다."
불교집안에서 태어나 어릴 때부터 자주 사찰에 드나들었던 박 씨는 경전 중에서는 특히 <반야심경>이 감명 깊었다고 말했다. 소설 마지막 장면에서도 박 씨는 로봇 부처인 '인명'의 입을 빌어 '모든 것은 공(空)하다'는 <반야심경>의 핵심을 풀어 썼다.
이은비 기자 renvy@buddhapia.com

대구불교방송 사장 법조 스님 취임식



대구불교방송 3대 사장 법조 스님 취임식이 11월 8일 대구동구문화체육회관 리셉션장에서 열렸다. 이날 취임식에서 법조 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불교방송의 가점권 확대와 다양한 수익사업 개발로 안정적 경영을 이룰 것'이라고 다짐했다.

진각종 보살십선계 수계법회



진각종(총리원장 효암)은 11월 8-9일 삼매야계단이 설치된 서울 탑주심인당과 대구 희락심인당에서 각각 보살십선계 수계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수계법회는 2년 이상 불사에 동참하고 7일간 습의불공을 마친 진언행자 5백여 명이 참가했다.

대불광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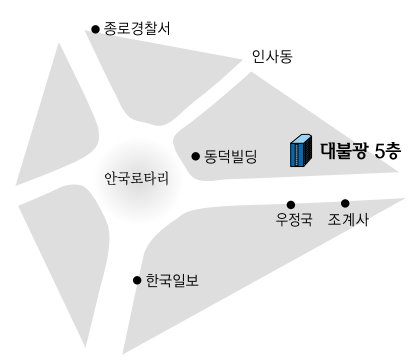
대불광이 작은마음으로 문을 열어 10여년이 지났습니다. 여러 제방스님 불자님들의 관심과 은덕에 힘을 입어 새로운 전시 공간을 마련하여 개관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일일이 전해야 하지만 우선 지면으로 인사 여쭙으니 해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11월 대불광 대표 허길량

마음을 다하여 초대의를 올립니다.

개관안내

일시: 2004년 11월 18일 오후 5시
장소: 대불광빌딩 5층 전시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대불광빌딩 5F 전시관 02)738-1117

길상원 이전

삼보 귀의 하옵습니다.
길상원은 제방스님, 불자님들 덕분에 성장 발전하여 이제 새로운 공간을 마련 이전합니다. 조촐하게 이전식을 갖고자 하오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격려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상원 차재욱 보현심 합장

● 일시: 2004년 11월 20일 토요일 오후 3시
● 장소: 길상원 Tel. 02)722-4435

